전북도립여성중고 학생들과 공감토크 나선 서거석 교육감

"배움의 열정 존중, 길 적극 지원"

'나의 꿈, 나의 삶' 주제
성인 학습자들 꿈 응원

19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도립여성중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배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9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서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의 꿈,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감토크는 이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뒤늦게 배움의 길을 선택한 성인 학습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과 사회의 반응, 미래의 꿈 등을 얘기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이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서 교육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전현기 선생님이 생각난다"며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내게 큰 힘이 됐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유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등을 타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젊어서 운동했던 것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70대 학생에게는 "공부, 동아리 활동, 젊은 세대와의 친구 등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한 없이 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저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기에 배움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책걸상, 급식 및 체육기구 등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정부지원 사업 호남권 유일 선정

전북대, 5년간 총 64억5000만원 예산 지원받아
첨단모빌리티 · 이차전지 전문인재 양성 '시동'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정부지원 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첨단 모빌리티 및 친환경 이차전지 분야에서 핵심 R&D 기술개발과 고급 대학원 연구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앵커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수요에 기반해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첨단 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및 맞춤형 대학원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전략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올해 전북대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총 7개 대학이 참여하게 됐다.

이에 전북대는 5년간 총 6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첨단모빌리티 분야(자율주행, 센서, 인공지능) 및 전고체를 포함한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및 대학원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맞춤형 연구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첨단모빌리티 및 이차전지 분야 혁신연구실' 설치를 통한 산업현장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기반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DH그룹은 사업 참여 석·박사급 인력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국제 네트워킹 및 기술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괄책임에 전북대 이덕진 교수(기계설계공학부)가, 공동연구진은 서형기 교수(화학공학부), 김진수·서인석 교수(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공학전공)가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국장)은 "지역별 전략 산업분야 핵심 기술 보유 대학과 기업 간 R&D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대회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서거석 교육감, 소년체전 전북 대표 출전 야구팀 격려
솔내생활체육공원 방문 전라베이스볼클럽 선수단 응원

서거석 교육감은 19일 전주 솔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을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는 야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전주 솔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을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는 야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전에서 참가하는 전라베이스볼클럽(전라B.C) 소속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한 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소년체전에는 도내 187개교 772명이 35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 선수단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반려동물 스트레스 완화 전문 OTT 서비스 해피독TV가 수의학 치료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정식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반려동물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수의학 치료에

전북대 수의대-해피독TV, 디지털 치료 콘텐츠 개발 협력
동물행동학 연구소 공동 설립, AI 기반 공동 연구도 확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동물의료센터장 신기욱 교수)과 반려동물 스트레스 완화 전문 OTT 서비스 해피독TV(대표 곽상기)는 수의학 치료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정식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수의대 내에 '동물행동학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해피독TV는 삼성·LG 스마트TV, 아마존 파이어TV, 구글 안드로이드TV, Roku TV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Daycare'와 'Sensitive Care' 두 가지 채널을 전 세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AI 기술을 접목한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유익한 디지털 치료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수의학 치료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 교수(전북대 글로컬대학사업 JUIC 펫바이오·동물의약품 분과장)는 "지난 10여 년간 해피독TV와 협력해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에 맞춘 기능성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며 "돼지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재는 사람 대상 스트레스 저감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감성 성격, 분리불안, 호흡기·심장질환 등을 지닌 반려동물의 보완적 치료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치료법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스포츠 발전 기여
인물 기록화 사업 추진

4년 연속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 선정… 사업비 지원받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우석대에 따르면 4년 연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사업에 선정된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는 사업비 1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생애와 기억을 담은 구술 채록과 사진 및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국립스포츠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천호준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장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기억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더불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석대학교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는 스포츠 현장의 기억과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2015년 4월 설립됐으며 △한국 올림픽 역사 재정립 연구 △구술 채록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한국 올림피언 관련 저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창의인재 양성 위한 영재 · 발명교육 컨설팅 추진

전북교육청, 11월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된 영재교육기관, 발명교육센터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15개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직속기관에 설치된 미래창작공방 1개소, 전북교육청 승인 28개 영재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면 점검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각 기관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기관별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발명교육센터와 미래창작공방에 대해서는 기자재 관리, 안전 점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영재교육기관을 대상으로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및 예산운영을 비롯해 평가 체계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2026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컨설팅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선행요건 관리 · 위해요소 분석 · HACCP 7원칙 등 구성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스타센터에서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주력 산업인 식품산업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실무 지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선행요건 관리 △위해 요소 분석 △HACCP 7원칙 △식품공전 △관련 법규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식품 품질관리 직무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던 중 학교 지원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HACCP 수료증까지 바로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남겼다.

신숙경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력 산업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교육청, 23일까지 장애인
오케스트라 명칭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 장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최근 8명의 단원 선발을 마쳤다.

이번 명칭 공모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취지와 정체성을 반영한 참신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전북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장애공감 문화 확산과 희망, 도전의 가치를 담은 부르기 쉬운 명칭을 온라인(https://naver.me/57QDFA6H)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작(1명)에게는 10만원 상당, 우수작(2명)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장은성 기자

현업업무종사자 작업성 질환 예방 · 건강증진 지원

전북교육청, 7월까지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중 희망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원 사항은 근로자 스스로가 근골격계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비롯한 근력운동, 스트레칭, 볼 마사지기를 활용한 운동 교육 및 실습 등이다.

특히 올해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조리실무, 시설관리, 미화 등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근로자건강센터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직종별 작업 현장에 맞는 운동법을 개발하고, 운동처방사를 통한 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업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